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라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칠십 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0:12-22]

여러분, 왜 사시죠?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쉬운 듯 한데 쉽지 않은가 봐요. 예전에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고 말지요.’ 라는 책이 있었어요. 왜 그냥 웃고 말아요? 웃는 걸로 답이 되나 봐요. 별로 안 좋은 대답입니다마는 ‘죽지 못해 살지요.’ 하는 것보다는 백 번 낫죠.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많은 것 ‘먹기 위해 사는 거죠, 뭐.’ “먹자고 하는 짓 아니냐?” 그래서 먹는데 열심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사느냐?’고 하는 말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요?’나 마찬가지로 질문입니다. 질문을 바꾸면 ‘나는 누구인가?’와 마찬가지로 질문입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철학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철학의 첫 번째 질문 ‘인생이란 무엇인가?’ 몇 천 년 동안 이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질문에 명쾌한 대답이 없는 모양입니다. 사람마다 답이 다 달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답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부흥회에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인도의 설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짐승 코끼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우물이 있더라고요. 마침 침낭쿨이 있어서 침낭쿨을 타고 우물 밑으로 내려갔는데 밑에는 독사가 우글 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간에는 독사 네 마리가 있고요. 무서워서 위를 쳐다보니까 흰쥐 검은 쥐 두 마리가 침낭쿨을 갇아 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 했답니다. 얘기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그쯤 합시다.

그런 인생 어떻게 살아요? 아등바등 매달려서 흰쥐 검은 쥐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힘 풀릴 때까지 버티요? 아니면 떨어져서 일찌감치 독사한테 물려 죽는 것이 낫겠어요? 인도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대책도 없이 어렵다는 얘기는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이 짐승이지, 뭐. 짐승하고 똑 같은 거지.” 이런 사람 적잖게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먹고 배부르기만 하면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체면이고 양심이고 예의고 아무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배만 부르면 돼요. “우리 인생은 그냥 짐승의 한 종류일 뿐이야.”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배만 불러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배는 부른데 무엇인가 허탈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싶은데 무엇인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도 짐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 아니면 뭐죠? 인간이라는 거죠. 그 정도만 되면 짐승은 아니고 인간인데 그럼 인간이 뭔데? 그러면 글썽,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옛날 철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인간은 버려진 존재다.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진 존재다.”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각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고뭉치가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제가 가출해 버린 여자애 하나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기어코 찾아냈어요. 문을 뚫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계집애 둘하고 남학생 셋이 밥새도록 난장판을 쳐 놓은 거죠. 제 목표는 그 여학생 하나였지만 그래도 그 남학생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다 붙들어 가지고 “집이 어디고? 학교가 어디고?” 물어봤더니 애들 답변이 이래요. “집에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버린지 오래 됐습니다.” 이러잖아요! 아,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자아이 하나만 붙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 충격이 아직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버렸는데요?” 이런 방법이 없어요! 경찰서 넘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경찰서에서 제일 먼저 집에 연락해도 부모가 연락되지 않아요. 그러면 학교에 전화 걸어요. 자기들 스스로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선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종의 폭탄이 크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나마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잠시 소풍 왔다 가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나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고 이 땅에 소풍 왔다 가는 것이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거의 기인에 가까웠던 어느 시인이 “소풍 갔다가 잘 놀다 왔노라고 말하겠다”는 시를 한 편 남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거죠. “인생은 정처 없이 걷는 나그네” 분위기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가끔 새신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맞나요? 별 생각 없이 많이 부르셨죠? 교회 안에서 많이 쓰고 부르는 말이라도 한 번 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나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 하면 아이들에게, 교회처음 나온 초신자들에게,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들려 줄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 번도 사랑 받아본 적이 없고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이것이 충격이 됩니다. 눈물을 흘릴 만큼 충격적인 말이 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아빠, 엄마 사랑 많이 받고 정말 사랑받을 만한 아이야.” 괜찮아요. 아이가 다 커서 엄마 아빠는 능력도 없고 다 늙어 가는데 아이는 서른, 마흔 다 되었는데도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 베풀려고 해도 능력도 없는데요? 다 큰 아이에게 그런 노래 들려주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랑 전해 주려고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이 더 어울릴 겁니다. 자꾸 받기만 하려고, 받는데 너무 감동받지 마시고 이제는 주는데 더 큰 감동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란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초신자나 어릴 때에는 참 좋은 표현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어린아이 같이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 가는 겁니다.

또 가끔은 그런 표현을 써요.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잠시 보내셨는데 여고 마치 하나님의 훈련소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병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난을 이겨내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조금 괜찮은 표현이기도 해요. 정처 없이 걷는 나그네니, 버려진 존재니, 이런 것보다는 그나마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고요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앞쪽에, 9장에서 10장 앞부분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켜 주셨다. 먹이고 마시우고 지켜 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너희가 잘라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아느냐? 이런 책망이에요. 불순종 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렘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을 직접 들려 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십계명을 들려 주셨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그만 말씀하시고 우리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동안에 산 밑의 백성들은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 하다가 하나님께 엄청난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호렘산에서 너희 조상, 너희의 아버지 세대들이 왜 그렇게 징계를 받고 야단을 맞았느냐?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너희는 재발 그러지 말고 여호와만 잘 섬겨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서 조상들의 잘못을 길게 설명한 것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표현 하나가 13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왜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덕을 보려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무슨 덕을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시키면서 이런 말 하죠? “내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러고 시키죠. 흔히 부모님들이 자식들 잘되라고 수고하고 일시키면서 하시는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시는 이유가 나중에 자식들에게 노후 보장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 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모 없어요! 계산 안 해요. 밑지는 장사입니다. 장사로 치면, 부은 만큼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붓고 자식들 잘되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낳았기 때문입니다. 낳았으니까 너희 잘 되라고 부모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실까요? 이유가 15절 뒤편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왜 그런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자녀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수고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흡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행복하려면 이 계명을 지켜라. 달리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답을 알아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는 진짜 큰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이유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죠. 그냥 내 자식이니까 행복하게 살아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식으로서의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부모에게 하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날마다 고생하고 애쓰는 것을 아는데 명절이라고 선물 사들고 오면 부모가 그렇게 좋아 하나요? 부모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회사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조그만 아이가 “아빠, 왜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도움이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은 절대로 안 되죠. 아이가 아빠가 고민하고 있는 회사의 일을 도와요? 절대로 못 도와요. 그건 안돼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힘을 줄 때는 있어요. 이런 도움은 돼요. “네가 임마,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빠 도와냐?” 이걸 나쁜 아빠다 그죠? “아빠, 무슨 고민이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 나오면? 도울 수 있는 힘 자체는 없어도 이 말 하는 게 힘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제사를 부지런히 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득이 될까요? 날마다 제사를 아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의 배가 부르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고 큰 득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명하셨느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행복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싶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는 게 이스라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작은 일, 이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입장을 바꾸어서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이거 꼭 해라.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자녀에게 고통일까요? 어린아이들에게 한글 배워야 된다고 해서 한글 가르치고 구구단 외워야 된다 해서 구구단 열심히 가르치고 그게 자녀에게 큰 고통일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아이는 큰 인물 되는 겁니다. 유명한 음악가나 유명한 선수들이 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는 어릴 때 엄마가 옆에서 회초리 들고 버티고 앉아서 탄 쫓하면 손등을 때렸대요. ‘아, 그러면 피아노가 싫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고비를 넘기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다는 겁니다. 열심히 친다고 다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진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해요.

운동선수? 마찬가지로. 제 기억으로는 황영조가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한 번 두 번 아니었다.” 그런 아픔들을 딛고 일어나야 큰 인물이 되고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이것 해야 돼.” 라고 할 때 힘든 일인데도 우리 아이들이 기쁘게 들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해요. 어른이 되면 뭐가 좋으냐? 하고 물어 봤더니 어른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소파에 빈둥거리며 아이에게 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말만 해도 다 되니까 자기도 빨리 커서 그것이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이 모르고 하는 겁니다. 아빠가 소파에 앉아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하나마 아빠의 하는 일이 정말 쉬운 것인가 싶지만 그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자식들이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것은 전혀 모른 채 아빠가 조금 시키는 것 짜증내면서 내만 시킨다. 그러는 거죠. 자식이 부모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면서 부모가 시키는 작은 일에 힘들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그것도 어쩌면 비슷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는 알겠냐? 나는 정말 사랑하는 내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이 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형제들 섬기는 것이 정말 힘들더냐? 이러시면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우리에게 혹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이해하고 빨리 깨닫는 것이 부모의 수고를 아는 큰 아들이에요. 그렇게 빨리 장성한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자라지 않고 어린 아이 노릇만 하면 안 되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사랑받아야 돼. 이러면 늘 어리다는 이야기입니다.

털 받았으면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많이 받으셨다면 이제는 많이 베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 줍니다. 16절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 없는 자란 말은 죽어도 마땅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육이나 마찬가지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할례를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한 것이 진짜 할례라고 주장을 했으니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를 부정했다는 거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열성적으로 따라 다녔는데 세상에,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바울이 처음 이야기 한 것이 아니네요? 이미 신명기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흔적? 아니면 우리 손으로 해놓은 이런 일? 아니요!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마음이 담긴 것,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는 이럴 때에 어깨에 힘을 너무 주지 말라고 하죠. 크고 두려운신 하나님이니 그 앞에서 긴장 떨지 말라, 파묻지 마라는 뉘앙스를 지닌 말씀이죠.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도 통하지 않고 뇌물도 통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마는 외모가 안 통하니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인물 좋게 꾸며서 가도 소용없어요. 뇌물이 안 통하니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도 안 통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을 드리는 방법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이 그일라를 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판에 저 블레셋을 칠까요?”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하들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싸우러 갈 때 입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치러 갈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블레셋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래서 블레셋을 쳤어요.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하고 거기 거주하는데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그일라로 온대요.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정말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까요?” “응, 올 거야.” “사울이 그일라에 오면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응, 넘겨 줄 거야.”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갔죠.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잘 하세요. 참 친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게 친한 하나님께 다윗이 왜 한 가지 요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마지막에 무엇을 한 번 요구해 보겠어요? 하나님, 사울 여기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사울을 쫓아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한 번쯤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참 친밀한 관계인 것 같아요. 친해지면 예의에서 벗어난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 쉽게 말해서 사울을 세우고 폐하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 소관이니 내가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고 거기에는 손도 안 대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친하다고 해서 선을 함부로 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고 하면서도 목을 끈게 세우지 말라고 하지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시니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친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8, 19절을 보시면 약자를 더 잘 돌보아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특별히 은혜 베풀어서 너희를 불러냈으니 너희도 너희 주변에 있는 약한 형제나 이웃을 잘 돌보아 주어라고 당부하셔요.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냥 읽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을 찾아 대조해 보세요. 중간에 '그에게 의지하고'란 표현이 옛날 개역에는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번역이 더 좋을지 생각해 보면 '의지하고'보다는 '친근히 하고'란 표현이 더 좋아 보여요. 본래의 의미는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으니 너희는 그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에 쓰일 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다고 말할 때 한 몸이 될지니 하신 그 '한 몸'과 여기의 '친근'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바짝 붙어 있어라. 그래서 개역성경의 '친근'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것을 왜 희미하게 개정에서 '의지하고'라고 고쳐 버렸는지 불만스럽지만 의미는 '친근히 하다'라는 것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면 아버지께서 말 안 듣는 아들 때문에 매를 들었어요. 도망가는 게 적게 맞아요? 바짝 달라붙는 게 적게 맞아요? 도망도 멀리 가면 되는데 어중간하게 가면, 도망가면서 계속 맞아요. 매맞기 알맞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망가면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도망가지 말고 착 달라붙으면 매를 들고 있어도 잘 때리지를 못해요. 달라붙는 아이 잘 못 때립니다. 도망간 놈은 언제 맞을지 몰라 해가 지도록 기다리면 고역인데 달라붙는 놈은 금방 풀려요. 그리고 떡을 얻어먹어도 하나 더 얻어먹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복을 주셔요. 혹시 잘못해서 매를 맞더라도 더 달라붙어 버리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친근히 하다,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뭐 해달라고 조르기보다는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면 웬만한 것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평소에 말도 많다가 필요할 때만 돈 달라고 하면 주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늘 알짱거리고 장난치고 집적거리던 자식이 "돈 좀 필요한데..." 하면 의외로 쉽게 나가요. 친하게 지내는 게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는 네 찬송이시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찬송하라는 이유가 22절에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칠십 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 같이 많이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평생에 아들 하나 남겼습니다. 이 아들이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60세에 겨우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정말 손이 귀한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된 거예요. 400년이 지났더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송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 주세요, 저런 것 주세요." 하고 조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

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시나요?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지금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면?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이, 그것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잊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새벽차 운행을 많이 하면서 나갈 때 마다 시골길 가면 소 팔러 가고 돼지 팔러 가는 것을 많이 봐요. 볼 때마다 ‘아, 내가 소로 태어났으면?’ 소가 제일 안타까워요. 소 팔러 갈 때 눕혀서 갑니까? 서서 갑니까? 서울에서는 보기 어렵죠? 시골 가면 많아요. 서서 가는데 코에 줄 매는 것 있잖아요? 밧줄로 묶어 봤어요. 소가 중심을 잘 잡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차가 덜컹거리는데 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지면 코를 묶어 두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따라 가면서 고민이 그런 거예요. ‘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어쩌다 닭장 차도 만나요. 그 후닥닥 거리는 닭을 어떻게 싣고 가는지 아세요? 한 마리씩 칸칸이 철망으로 되어 있는데 날개도 못 펴고 다리도 못 펴고 실려 가는데 마음이 참 아파요. 닭털 풀 풀 날리고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더 안타까운 것은 날개도 못 펴고 다리도 못 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나게 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일이 말씀 다 드리기는 어렵지만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에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말도 안 듣고 진짜 부모 속 썩이는 아이 있으면 봉사 활동 좀 시키세요. 특별히 몸을 자기 마음대로 잘 못 쓰는 그런 곳에 봉사활동 갔다 오면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는 수가 있어요. 내가 공부도 시원찮고 인물도 못났고 불만이 아주 많다가 나보다 훨씬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확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나보다 나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만 쳐다보니 더 답답한 지도 모르죠. 시선을 조금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변을 돌아다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근하게 지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할 마음도 없이 ‘하나님이 있다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빨 악물고 덤비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답은 참 간단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그러니 행복해야 하느니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말은 20절로 가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와 똑같은 겁니다. 누군가가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버려진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녀는 틀림없는데 어린 자녀냐 다 큰 자녀냐는 문제가 있긴 해요.

자녀는 부모를 봉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다 컸어도 하나님을 봉양할 의무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봉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믿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 큰 형님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누군가가 하나님 잘 아느냐고 묻거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과 아주 친한데요! 친근히 하라는 것은 친하게 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묻거든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하나님 아시냐고요? 예, 저 하나님과 아주 친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 질문 아시죠? 인간의 근본 된 목적이 무엇이냐? 딱 이것 두 가지 아니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